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급등으로 인하여 대외여건이 큰 폭으로 악화되면서 경제전반에 엄청난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고 疏通不足으로 인한 촛불시위 등 국론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不撤晝夜 국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도권집중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 중인 행복도시 건설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충청권 국회의원까지도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縮小·調整

될 것이라는 여론이 擴散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理由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행복도시는 “當初計劃대로 추진함은 물론, 교육·과학·산업·문화 등의 기능을 追加해서 自足的인 面貌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한 뒤 새 정부가 出帆한지 140여일이 지나도록 代案提示는 물론 여론악화에 따른 아무런 立場發表가 없었으며

지난 7월1일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건설을 강조했고 무조건적인 수도권규제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복도시건설 사업에 대한 2009년도 정부예산 사업비가 국가재정운영계획서상에 반영된 사업비 8,768억원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4,119억원 밖에 검토되지 않고 있음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행복도시건

설 사업을 축소·조정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시는當初 계획한대로 변함없이 건설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2009년도 정부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100%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며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행복도시 건설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가장핵심적인 국정시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함께 잘살기 위한 균형발전의 시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하여 정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